

#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최대석(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정 부교수)

김종수(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서론

최근 북한은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청년들에게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하며, 혁명의 대를 잇는 데서 3세·4세가 특별히 중요하다”라며 “김정일 장군님의 아들딸 세대라고 자손만대에 길이 노래할 수 있도록 영웅적으로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sup>1)</sup> 지난 시기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분석하면 사회 어느 계층보다 청년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은 권력승계 담론 형성의 매개체(媒介體)이자 전위(前衛)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승계는 ‘위기’를 내포하는데, 이는 모든 시기에 인정받은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과 정연한 승계 방법이 없거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sup> 김일성은 청년문제를 “혁명의 계승자에 관한 문제로서 혁명과 건설의 성

1) “혁명의 3세·4세,”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2)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 72~73 참조.

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sup>3)</sup>하고, 안정적인 후계 구축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위업의 달성을 독려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사회·문화의 변화가 수반하였다. 권력승계 시기에 유일지도체계의 확립·강화와 ‘혁명전통’ 교육과 대중운동의 강화, 간부들의 세대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청년계층 역할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 신진 간부와 청년들이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수용’이 관건인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sup>4)</sup>으로 인해 이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유일(唯一) 청년조직인 사로청<sup>5)</sup>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일 이후 북한 권력 변화 양상(樣相)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

---

3)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청년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8), 15쪽.

4) 사회학자 고서처(Gorsuch)는 ‘혁명과 이행’의 시대에 청년(Youth)이란 단어에 순수하며 열정적이며 정열적인 긍정의 의미와 타락하기 쉬우며 단련되지 못하였고 감염되기 쉽다는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Anne E. Gorsuch, *Youth in Revolutionary Russia*(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p. 12.

5) 사로청은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로 창립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거쳐 현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명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자연재해, 김일성 사망 등으로 위기를 겪던 북한은 청년들이 동요하지 않고 체제에 충성하도록 두려하는 조치의 하나로 사로청의 조직 명칭을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이름을 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명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수, “북한의 위기대응전략: ‘청년중시’정책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43호(2005), 260~263쪽 참조. 본 논문에서는 현재와 일반적 의미의 청년조직에 대해서는 청년동맹으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민청, 사로청으로 줄여서 사용한다.

다.<sup>6)</sup> 이를 위해 사로청의 지난 시기 역사와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사로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 보며,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운동이 사로청 변화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보였던 사로청 변화가 김정일 이후 권력승계 과정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는 것인지 예견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당시 북한에서 생활하던 북한 주민 또는 간부들로부터 실증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구 범위는 김일성-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 중이던 1960년대 하반기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sup>7)</sup>

- 
- 6) 이수석의 연구에 따르면, 김정일의 권력 장악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쟁점으로는 후계선정 요인, 후계자 추대과정에서 권력 갈등 존재 여부, 후계 추대시점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석, “김정일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존 쟁점들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42호(2004), 88~93쪽 참조. 김정일 이후 북한 후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성장과 이기동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정일 후계 문제의 부상 징후로 이기동은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 계속혁명과 혁명위업 계승 강조, 선군사상 일색화를 들고 있다. 정성장은 김정일 부인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 장성택과 그의 측근에 대한 정리,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강조, 3대혁명소조의 재파견, 세대교체의 급진전을 들고 있다. 정성장은 1974년 김정일이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주창한 것과 2003년 ‘전국 선군청년전위 열성자대회’에서 청년들의 선군사상화 실현을 언급한 이후 『로동신문』에서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를 강조한 것을 대비해 볼 때 북한의 새로운 시대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성장,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후계 문제: 현황과 향후 전망,”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제52호(2004년 8월); 이기동, “선군시대로의 이행과 후계구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민주평통 서울시협의회, 『김일성 사후 10년, 김정일 체제 평가』(제4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2004) 참조.
- 7)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되고 당과 사회에서 김정일의 영도체제를 확립한 시기, 즉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 시기’를 1974년부터 1980년 9월까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위업』,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173쪽.

## 2. 사로청의 형성과 역할

### 1) 사로청 창립과 발전

북한의 유일한 청년조직인 청년동맹은 만 14~30세<sup>8)</sup>의 모든 청년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동맹원 수는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청년동맹이 직접 지도하는 소년단원 300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sup>9)</sup> 특히 이들 대부분은 우수한 노동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경제적 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청 창립은 1946년 1월 16~17일에 개최된 북조선 민주청년단체 대표자 회의에서다. 민청의 창립 당시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이다.<sup>10)</sup> 북한에서 민청 창립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

- 
- 8) 청년동맹의 가입 연령은 초기(청년동맹 3차 대회, 1948년)에는 만 16~26세, 4차 대회(1956년)에는 14~28세, 5차 대회(1964년)부터 현재까지 14~30세로 바뀌었다.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정치문화교양부, 『동맹강령 및 규약해설』(평양: 청년생활사, 194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 284; 『조선민주청년동맹 제4차 대회 문헌집』(평양: 민주청년사, 1956);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규약,” 『로동신문』, 1964년 5월 17일.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의 가입 연령은 만 14~28세이다. 전체 청년 인구의 18%인 약 5,600만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구소련의 품소몰의 가입 연령도 만 14~28세이다. 1980년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60%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동맹이 모든 청년들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한 데 반하여 중국과 소련의 청년조직은 청년들의 ‘자원성’에 기초하여 가입·활동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9)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26일),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41쪽.
- 10)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북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둘러싸고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이나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창립대회’이나 하는 문제와 같이 조직 명칭은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기존 당에 종속된 조직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당인가를 가름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민청의 창립 당시의 명칭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강

이유는 지도부 내에서 공청·민청 논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계급의 청년들을 묶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비무산청년”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로 인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공청 유지 입장을 가졌던 오기섭은 청년조직을 정예화된 혁명조직으로 키울 것을 주장하면서 민청 건설을 반대하였다. 오기섭은 대중의 ‘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주의를 강조하여, 당과 사회단체가 군중과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sup>11)</sup> 김일성은 청년 역량이 결집하지 못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에서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는 것으로 판단하며, 청년들에 대한 통일전선 정책, 즉 민청 건설 노선을 추진하였다. 소련 품소몰 건설 초기에도 북한과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품소몰 1차 대회는 120개 청년조직을 대표한 194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절반을 넘는 88명이 공산당원이었으며, 38명은 공산당 동조자, 45명은 비공산당원이었다. 이 대회에서 대표들은 건설될 청년동맹이 러시아공산당과 단결하여 활동하는 점과 독립적인 조직이란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조직 명칭에 ‘Communist’를 넣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하였다. 이 논쟁의 핵심은 품소몰의 영향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와 멤버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였다. 결국 현재 모든 것을 공산당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어느 누구도 ‘communist’란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여

---

성운, “조선로동당 창건사에 대한 역사적 재고찰,”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39호(2003), 63쪽. 남북 민청 조직의 통합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에 ‘남북 조선민청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1)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 자료집』, 1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 383쪽.

<표 1> 초기 청년동맹 맹원 수 변동표

구분	시기	맹원 수
북조선민청 창립대회	1946년 1월 16~17일	약 252,500명
각 도당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장 연석회의	1946년 5월 30일	약 800,000명
조선노동당 창립대회 민청위원장 보고 내용	1946년 8월 28일	약 1,200,000명
청년동맹 2차 대회	1946년 9월 30일	약 1,300,000명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1947년 2월	약 1,400,000명
청년동맹 3차 대회	1948년 11월 11일	약 1,300,000명
청년동맹 4차 대회	1956년 11월 3일	약 1,500,000명
청년동맹 5차 대회	1964년 5월	약 2,700,000명

자료: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회의록,” 『북한관계 사료집』, 8권(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89), 35쪽을 참고하여 정리.

품소물의 명칭을 ‘공산주의청년동맹’, 즉 ‘Communist League of Youth’로 결정하였는데, 북한의 ‘민청’노선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민청은 창립 후 조직 규모에서 ‘고속’ 성장한다. 먼저 조직 규모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를 통해 민청 창립 당시 25만여 명이던 맹원 수가 불과 8개월 만에 개최된 2차 대회에서는 거의 5배인 13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어 민청이 사로청으로 발전하는 5차 대회에서는 민청 가맹 자격을 14~30세로 확대되어 거의 모든 청년들이 포괄되는 조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급속한 양적 성

12) Ralph Talcott Fisher, Jr.,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es of the Komsomol 1918 ~1954*(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p. 9~11.

13) 조직 초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민주개혁’인 토지개혁, 국유산업화 영향과 직업총동맹 청년부의 민청으로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 사료집』, 1권, 141쪽.

장은 청년동맹 조직에 문제점을 파생시켰다.<sup>14)</sup>

민청이 사로청으로 발전한 것은 민청 제5차 대회에서다. 민청 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로청으로의 조직 발전에 대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해방 후 우리 청년들은 당의 령도 밑에 민주청년동맹의 기발 아래 굳게 뭉쳐 북조선에서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 적극 참가함으로써 북조선에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공고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청년운동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sup>15)</sup>

사로청으로의 변화는 1958년 북한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어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이 사라짐에 따라 형식상으로 적대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결과로 근로단체들도 과거 반제·반봉건 혁명시기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와는 다른 성격과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 사회 구조 변화가 청년동맹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전 민청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망라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와서는 노동청년들이 핵심이 되어 근로농민청년, 근로인텔리청

---

14) 기층 민청 단체들에서는 맹원들의 가입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제군 민청에서는 1949년 1월 2일에 접수한 가맹 원서가 한 달, 두 달씩 상무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비준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초급 단체에서는 군 민청을 불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 민청 당조 제37차 회의록,” 『북한관계 사료집』, 4권(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86), 97쪽.

15) 『로동신문』, 1964년 5월 16일.

년, 청년학생으로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로청은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유일체제를 확립해 나감에 있어 당에 대한 충실성과 노동계급의 혁명 사상의 교육과 확립을 본격적으로 담당해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sup>16)</sup> 따라서 사로청의 기본 임무는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사업과 사회주의 제도 공고화를 위한 경제건설의 돌격대 역할로 변하게 된다.

## 2) 사로청의 역할

북한에서는 근로단체를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복숭아씨를 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살을 외곽단체”로 비유하였다.<sup>17)</sup> 당은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대중과 ‘혈연적’ 연계를 맺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조직 동원한다.<sup>18)</sup> 북한의 근로단체는 “직업별, 계층별로 묶고 그것을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화하여야만 대중조직의 분산성과 대중이 분열될 위험성을 미리 막고 대중의 조직적 단결과 행동상 일치성을 확고히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9)</sup>

북한에서는 청년동맹을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

16)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348쪽.

17)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75쪽.

18)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9: 영도체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 재발간), 175쪽.

19) 조선직업총동맹은 31~65세의 노동자, 사무원이 가입하며, 현재 약 150만 명의 맹원이 망라되어 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31~65세의 협동농장원을 대상으로 조직되며, 현재 약 130만 명의 맹원이 있다. 여맹은 31세에서 60세까지 다른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주부로 구성되어 있고, 맹원 수는 220만 명 정도이다.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 2003), 272~273쪽.



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 규정하고 있다.<sup>20)</sup> 초기 청년동맹은 ‘당의 인전대’라기보다는 ‘정권의 인전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는 1946년 민청 창립 당시 강령<sup>22)</sup>과 1948년 11월 3차 민청 대회 후의 강령<sup>23)</sup>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 20) “조선로동당 규약”(1980년 10월 13일), 통일부, 『2004 북한개요』(서울: 통일부, 2003), 528쪽.
- 21) 구소련의 청년조직은 창립 초기부터 당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당의 인전대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였다. 1918년 10월 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노동자농민청년동맹대회에는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 지도하에 개별적인 노동자, 농민 청년단체를 통일하여 하나의 단체인 러시아 공산청년동맹을 창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러시아 공청의 설립 목적은 공산주의 사상 보급, 노동자, 농민 청년들의 적극적인 인입을 통한 소비에트 러시아 건설에 있었다. N.아미하이로브, “전련맹 공산당은 공청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레닌-스탈린적 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 8쪽. 중국의 청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도 중국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되었다. 1946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민주청년단’을 건립할 것을 제의한 뒤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1948년 초 ‘신민주주의청년단(新民主主義青年團)’ 건설을 결의하고 1949년 4월에 정식 창립하였다. 중국의 경우 당이 직접 조직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당의 지도가 적극 수용되었으며 ‘당장(黨章)’에서도 청년단의 중앙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문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성격과 조직,” 한양대 중소연구소, 『중소연구』, 28호(1985), 166, 169쪽. 이와 같이 초기 북한의 청년동맹은 중국과 소련의 청년조직이 당의 인전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정통적 모습을 갖춘 것과 다르게 정권기관의 인전대라는 비정통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 22) 강령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면상 관련 있는 것만 소개한다. 제1조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여 강고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총역량을 집결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1949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91~92쪽.
- 23) 강령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2개 조항만 소개한다. 제2조 본 동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그 정강주위에 전체 민주청년을 결속시키며 청년들의 투지를 민주개혁의 전조선적 공고 확대와 부강한 통일적 민주주의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투쟁으로 인도한다. 제4조 본 동맹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모든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정치문화교양부, 『동맹 강령 및 규약 해설』(평양: 청년생활사, 194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 284.

초기 청년동맹은 국가 건설을 위해 집중적으로 동원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3일 면·군·시·도 인민위원을 선출할 것을 결정하였다.<sup>24)</sup> 인민위원 선거를 약 2달 앞두고 개최된 민청 2차 대회(1946년 9월)에서 한 김일성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당면 과제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25)</sup>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민청은 광범한 청년들을 결집하며 ‘질적’ 강화를 추진하였다. 민청은 맹원들이 생산현장으로 찾아가 쉬운 언어로 해설하는 민청선전원 제도로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 수립 정당성의 기초를 확립하였다.<sup>26)</sup> 1946년 12월 당 중앙위 14차 회의를 계기로 전개된 ‘건국사상총동원’에서 청년들은 문맹퇴치운동과 ‘학생사상기풍개변운동’<sup>27)</sup>에 적극 참여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12월 8일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문맹퇴치 사업에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학생 한 명이 50일간 100명의 문맹자들을 퇴치하고 5명의 강사를 양성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으로 파견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활동은 같은 대학생들이 평양교원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급

24) “면·군·시·도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확대위원회의 결정서”(1946년 9월 5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호), 정경모·최달곤 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134쪽.

25) 김일성, “민주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청단체들의 과업”(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2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9월 29일), 『김일성저작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462쪽.

26) 김일성, “민주조선건설에서 청년들의 임무”(도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 1946년 5월 30일), 『김일성저작집』, 2권, 238쪽.

27)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학생부문(version)에 적용된 것이 ‘학생사상기풍개변운동’이며, 이 운동은 1947년 민청 중앙상무위원회 ‘학생사업 특별강화에 관한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노동에 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심중운, “함경남도 함흥시 민청 학생사업보고서,” 『민주청년』, 1947년 4월 15일.

중학교 학생들, 인민학교 학생들까지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8)</sup>

청년동맹이 근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은 민청 3차 대회(1948년)에서다. 대회에서 강조한 민청 기본 임무 중에서 사상교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사상 교양 및 ‘과학적 선진’ 이론의 무장,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교양하여 경제건설에서 모범적 돌격대 역할 수행 강조,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교양하여 이에 대한 적개심을 발휘하여 국가보위와 국가에 복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대회 후부터 민청 간부 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본격적으로 학습되었으며, 선전부를 정치문화교양부로 개편하였으며 이 부문의 직제도 지도원제에서 전임 강사제로 고쳤다. 아울러 민청 독보망(讀報網)을 학습망으로 개편하고 유일학습제강을 가지며 매주 1회씩 정기학습을 함으로써 당의 사상을 청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sup>30)</sup>

6·25전쟁 중에 청년들은 ‘조국수호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

28) 1,800여 명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강사로 활동하면서 5만 580여 명의 문맹자를 퇴치하였다.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195~196쪽. 소련의 ‘문맹퇴치비상위원회’ 조직을 본 따 북한에서는 ‘문맹퇴치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소련 공청원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문맹자들을 등록하기도 하고 책값, 종이값을 거두기도 하며 어린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을 아는 공청원은 반드시 문맹자 한 명을 가르쳐야 하는 규칙이 있었으며, 맹원중 속지에는 자신이 퇴치한 문맹자 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올라지미르 예고로브, 『70돌을 맞는 쏘련공청』(모스크바: 아베엔출판사, 1988), 32쪽.

29)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연설”(1948년 11월 14일),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평양: 문화출판사, 1949), 275~279쪽.

30)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1), 318쪽. 이종석은 민청 3차 대회를 계기로 민청 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당시 간부들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습은 이루어졌지만 맹원들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두진, “동맹 정치교양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청년생활사, 『청년생활』, 1949년 9월호, 11~15쪽 참조.

이에 청년들에 대한 대중적 영웅주의 정신의 교양이 강조되었으며, 참된 영웅의 정신은 인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서 이기주의, 탐욕주의, 출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sup>31)</sup> 6·25전쟁 기간 북한에서는 533명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16명의 노력영웅<sup>32)</sup>이 탄생되었다.<sup>33)</sup>

전후 복구에서 청년들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일성은 전쟁 시기 ‘청년영웅’들이 ‘자폭정신’을 발휘한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 것이 청년들의 영예로운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함경북도에서만 불과 두 달 동안 3,300명이 탄광

31) 김하영,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사상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청년생활사, 『청년생활』, 제4권 제5호(1951), 31쪽.

32) 노력영웅칭호는 1951년 7월 17일 제정되었다. 노력영웅칭호는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이다. 노력영웅칭호는 받은 자에게는 국기훈장 제1급 금메달 ‘망치와 낫’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표창장이 수여된다.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정경모·최달곤 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1권, 403쪽. 소련에서도 독일 침략으로 인해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레닌그라드·모스크바 공청원들의 90%, 80% 이상이 군대에 동원되었다. 남은 청년들은 선전활동과 질서유지, 생산활동을 펼쳤다. 1941년 공청원인 보킨의 제안으로 ‘200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북한에서 전개한 ‘2인분 초과 운동’과 같은 내용이다. 운동에 참가하는 공청원은 먼저 자기의 기준량을 완수하고 전선에 나간 친구의 몫까지 생산하는 운동이었다. 전쟁 말기 소련에서는 청년작업반이 15만 5,000개였으며 100만 명의 청년들이 참가하고 있었다. 아·노·쉐레펜,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공청,” 『레닌-쓰딸린적 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 247~249쪽.

33) 북한에서 공간된 청년영웅에 관련된 책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청년영웅전』 1(평양: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근로단체출판사, 『청년영웅전』 2(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66)에는 총 14명의 ‘영웅담’이 실려 있다. 1951년 12월 30일 현재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수훈자는 309명이며, 이들 중 2중 영웅칭호를 받은 자는 3명이다. 전체 309명 중 연령이 파악된 수는 266명이며, 이들 중 31세 이상은 30명이며 나머지 다수가 20대이고 10대도 10명이 있다. 남녀 구성에 있어서 여자는 6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442~445쪽.

으로 진출하였으며, 사무직에 있던 청년들도 생산직으로 전직하였다. 평남관개공사에서는 민청이 가장 크고 어려운 공사 구간인 ‘10리굴 공사장’을 ‘민청돌격현장’으로 설정하고 청년돌격대가 투입되어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이 청년동맹은 당의 인전대로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을 침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당원을 양성하고 간부를 배출하는 ‘당의 후비대’와 경제건설의 ‘돌격대’ 역할을 통해 체제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 3. 사로청 변화의 실재(實在)

#### 1)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교양 방법의 다양화

북한에서는 1967년 5월 당 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당 안에 숨어있던 부르주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의 반당반혁명적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였다.<sup>35)</sup> 이를 계기로 사로청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의 본질과 사상적 근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1967년 12월에 개최된 사로청 중앙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이를 위해 김일성의 교시와 노작, 혁명 역사·전통,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철저히 할 것, 사로청안의 규율을 강화하여 부르주아 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척결할 것을 결의하였다.<sup>36)</sup> 따라서 사로청에서도 유일사상체계 확립

34)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236, 240쪽.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서울: 돌베개, 1989 재발간), 216~217쪽.

을 위해 전사로청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로청 6차 대회에서 한 김시학 위원장의 사업 보고를 통해 사로청 내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전체 사로청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였으며 사로청안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건결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교양의 모든 내용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하였습니다.<sup>37)</sup>

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학습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이 활용되었다. 김정일이 창조하여 사로청에 지도하였다고 하는 ‘1만폐지책읽기운동’, ‘창작된 혁명영화들에 대한 실효모임’,<sup>38)</sup>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sup>39)</sup>을 비롯해 ‘청년학교’ 운영 등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

36)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370~371쪽.

37) 『로동신문』, 1971년 6월 22일.

38) 1972년 김일성 생일 60주년을 기해 발표한 <피바다> 공연은 김정일이 주도하였다. 혁명 1세대들인 김일성, 김일, 오진우, 최현, 오백룡, 백학림, 이을설 등은 <피바다> 공연을 관람한 후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항일 1세대들의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으며 후계자로서 적극 추천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강신우,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연구”(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8), 19~20쪽.

39) 김정일이 빨치산 세대인 임춘추·박영순을 동반하여 한 달간 직접 백두산 전적지를 답사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출발하여 도보 및 자동차로 평양에 돌아오면서 코스를 확정하였다.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95), 95쪽.

한 교육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사로청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자’라는 구호를 새로 제시하고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출판 사업을 적극화하는 것과 함께 노작연구토론회, 노작연구발표모임, ‘김일성동지 혁명활동 약력’ 통달사업을 진행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김일성저작선집’ 통달 사업과 노작 통달 사업을 통해 김일성의 사상과 활동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시기는 만경대와 보천보를 제외하고는 ‘혁명사적지’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한 체험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김정일이 주도하여 ‘혁명전통’ 선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전적지 건설을 강화하였는데,<sup>40)</sup> 이 건설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1971년 6월 사로청 6차 대회 이후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 중심 거점이 되어 사상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청년학교’라는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김일성의 젊은 시절 활동과 사상을 교육하였다. 청년학교는 청년교양의 중요 거점으로 강의와 토론, 문답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었다. 청년학교에서는 해마다 학습이 끝나면 학습총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의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였다.<sup>41)</sup> 또한 ‘초급사로청간부 단기양성반’ 운영을 강화하여 신진 사로청 간부의 양성 및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42)</sup>

1973년 사로청 6차 전원회의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 방법에 대해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도가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청년과 학생들에게 1년에 1만 페이지의 책읽기운동을 독려하였다. 이에 공장과 학

40) 김정일,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자”(1968년 7월 18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82쪽.

41) 채종완, 『청년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46쪽.

42)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424쪽.

교의 청년들은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동지략전』<sup>43)</sup>과 같은 노작들에 대한 책읽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sup>44)</sup> 문답식 학습방법은 김정일이 주도하여 보급한 학습방법으로서, “영광스러운 당 중앙은 문답식 학습방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우월성을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였다”라고 밝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다.<sup>45)</sup> 1975년에는 사로청 중앙위원회 주최로 제1차 ‘전국대학생문답식학습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김일성저작선집』 6권과 김정일의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가 주제로 제출되었다.<sup>46)</sup> 문답식 학습방법은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으로서, 교육 참가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퀴즈 대결을 하듯이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가 김일성·김정일의 노작들을 토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한다.<sup>47)</sup> 궁극적으로 문답식 학습경연대회는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의 사상을 기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김정일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도록

43) 김일성의 노작 출판은 1967년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1968년은 1966년에 비해 종수(種數)에서는 거의 6배, 부수에서는 20배가 늘어났으며, 1967~1970년 4년 동안 260여 종 3,800여만 부를 출판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회상기 책만 2,160여만 부 이상 출판하였다.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269쪽.

44)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427쪽.

45)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의 학습론』(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132쪽.

46)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7), 397쪽.

47) 성혜량, 『동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1), 341쪽. 사로청에서 문답식 학습이 개최되기 이전인 1973년 11월 5일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가 김정일 지도로 개최된 것을 봤을 때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사로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 282쪽.



하였다.

‘1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1961년 김정일이 창조한 독창적 방식의 대중적인 책읽기운동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운동의 주요 대상은 대학생들이었다.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에서 대학생들은 “미래의 조국을 떠매고 나갈 새세대”로서 그들에게 학습혁명을 일으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이 ‘천리마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학습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극복하고자 강조된 것이다. 이후 ‘1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노래’가 보급된 정도로 대학생들에 대한 책읽기운동이 강조되었다.<sup>48)</sup>

‘창작된 혁명영화들에 대한 실효모임’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혁명영화 감상회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8월 1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김책공업대학 사로청위원회의 <어느 한 가정에서>라는 영화의 실효모임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실효모임에 앞서 사로청위원회는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사상이 무엇이며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생활과 결부해서 생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영화 감상 후 실효모임은 참가한 학생들 중에 3명이 사로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연설하고, 참가한 다른 학생들이 감상문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sup>49)</sup> 실효모임은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1960년대에 건설 중이던 사적지들이 완공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답사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1974년도에는 전국의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소년단위원장 5,000명이 ‘배움의 천리길’ 답사교육에 참가하였으며, 1975년도에는 1만 명의 청소년들이 ‘광

48)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의 학습론』, 162~164쪽.

49) 『로동신문』, 1976년 8월 11일.

복의 천리길' 답사 교육에 참여하였다.<sup>50)</sup>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있어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된 것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감성을 최대한 활용한 '능동적 대처'라고 볼 수 있다. 변화에 민감하며 역동적인 청년들에게는 현장체험교육, 퀴즈와 영화감상 등과 같은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예술에 조예가 있다는 김정일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주도한 것도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영도력을 청년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세대교체의 전개과정

1970년대는 북한 정치사에 있어 '전환의 시대'로서, 김일성은 세대 교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권력승계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적극 활용하였다.<sup>51)</sup> 1967년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오랫동안 활동

50)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457쪽.

51) 1970년대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은 문화대혁명의 후과를 극복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중국 공청단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그 역할이 정지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2년 동안 모든 학생들은 문화혁명에 참여하였고, 학교는 폐쇄되었다. 이 시기 학생 세대들을 중국에서는 '황폐된 세대'로 부른다. 문화혁명 자체를 마오쩌둥 세력이 유소기·딩샤오핑의 실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볼 때 1966년 초 유소기·딩샤오핑의 지지 세력이었던 공청단은 마오쩌둥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공청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노선을 거부하고 수정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근거를 들어 조직을 해체·정돈하여 문화혁명 세력으로 재조직하였다. 그 결과, 공청단이 발간하는 『중국청년보』와 『중국청년』 등의 잡지가 정간되고 공청단 활동 자체가 중지되었다. 또한 공청단 제1서기 胡耀邦과 서기 胡克實, 王偉 등이 직책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노동개조에 들어왔고, 공청단 중앙은 홍위병들이 장악하였다. 1972년에 들어와 중국공산당은 공청단 재건을 서두르기 위하여 노동개조에 들어갔던 공청단 제1서기 胡耀邦을 다시 복직시켰다. 그

을 지속할 수 있는 젊은 간부들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간부 배치에 있어 노, 중, 청의 조화를 통한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52)</sup>

1971년 6월 사로청 6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벌써 해방 후 자라난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sup>53)</sup>

김일성은 이 연설을 통해 ‘계속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새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혁명정신을 철저히 체득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곧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대를 이어’<sup>54)</sup>라는 표현에서 후계자가 수령의 다

---

러나 공청단 재건이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재건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4인방이 제거된 이후였다. 1977년 3월 산서성에서부터 공청단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1978년에는 완전히 재건되어 15년 만에 공청단 1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문규, “중국 청소년의 사상정치교육,” 한양대 중소연구소, 『중소연구』, 41호(1989), 175쪽.

52)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19쪽.

53)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년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7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19~20쪽.

54) 1982년 중국공산당 12차 대회에서는 당의 조수와 예비군으로서의 성격을 공청단의 당장에 새로 삼입하였다. 당과 단의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고 공청단이 당의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중국공산당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힘의 공급, 즉 새로운 혈액의 보충을 무단히 필요로 한다. 이 새로운 힘과 신선한 혈액은 바로 청

음 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 언론과 선전매체들은 “아버지가 개척하고 미처 완수하지 못한 혁명위업을 아들이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 부모가 개척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라며 혁명의 세습을 강조하였다.<sup>55)</sup> 이 연설 후 당 조직과 사로청 조직들은 후계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할 사활적 문제라고 선전 사업을 시작하였다.<sup>56)</sup>

김정일은 당권 장악 사전 단계로 청년조직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조하였다.<sup>57)</sup> 먼저 2차 당대회 이후 폐지된 청년사업부<sup>58)</sup>가 1970년 5

---

년대이며 공청단은 이러한 새로운 힘을 보충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다. 청년단에서 많은 간부들을 배양하여 우수단원들이 당에 흡수됨으로써 당의 예비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문규, “중국공산주의 청년단의 성격과 조직,” 173쪽. 북한의 청년조직은 사회주의 청년조직이 가지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과 함께 ‘부자 권력승계’라는 북한 ‘특수적 현상’에 맞게 ‘대를 이어’, ‘계속혁명’ 담론을 통해 ‘혁명의 교대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55) 신경환, “결에서 본 김정일(상),” 『월간중앙』, 1991년 6월호, 366쪽.
- 56)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경남대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7권 3호(2005), 21쪽.
- 57) 초기 청년동맹에 대한 지도는 전당(全黨) 차원이 아닌 당의 위임을 받은 당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조는 정권기관이나 사회단체 안에 해당기관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며, 근로단체의 경우 상무위원 중 당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당조가 민청사업을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청의 ‘뒤꼬리’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민청 상무위 책임자이면서 민청 당조 책임자인 민청위원장이 당 상무위원회에 성원이 아니어서, 민청위원장이 당의 정책을 면밀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당의 정책을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민청위원장 1인에 ‘위임’했지만 그만큼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당적 지도가 ‘실패’했다. 이 당조는 1961년 9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4차 대회에서 민청을 당의 직접 지도하에 두기로 결정할 때까지 당이 청년동맹을 지도·통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1970년 5차 당대회에서는 사로청은 근로단체에 관한 일반적 규정 외에 “우리 혁명사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특별히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동맹 간부들이 당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당 조직들에서는 사로청 간부들을 당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현급 및 그 이하 각급 위원회 서기와 각 사업단위의 서기가 당원일 경우, 동급

차 당대회를 계기로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당 4기 20차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은 “사로청사업,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 잘 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와 도·시·군 당위원회들, 그리고 큰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과 인민군대 안의 정치부들에 청년사업부를 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sup>59)</sup> 즉, 미래형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시점에는 청년사업부가 부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차 당대회 이후 시점인 1970년 11월 24일 김일성이 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대상으로 연설하였다.<sup>60)</sup> 즉, 당 중앙위원회에 청년사업부가 부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1년 사로청 6차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계속혁명’에 대해 언급하기 전인 1960대 후반부터 권력승계를 대비해 청년사업을 강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권력승계가 청년조직에 대한 장악과 지도로 촉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당중교부사업’을 통해 노당원을 숙청한 대신 40여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당에 흡수하였다. 이것은 당내에서 김정일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대교체를 전면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4년 2월 김정일은 당 정치

---

의 당위원회와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중국 공청단의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330~332쪽 참조.

- 58) 2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에서부터 도에 이르기까지 청년부, 문화인부, 부녀부를 폐지하였다. 이유는 이미 사회단체 내에 간부가 거대하게 성장하였으며 당조라는 지도기관이 있어 당 상무위원회의 직접 지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 사료집』, 1권, 437쪽.
- 59) 김일성,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회의에서 한 결론, 1963년 4월 18일), 『김일성저작집』, 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24쪽.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 60) 김일성,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 조직으로 꾸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11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85쪽.

국원으로 선출되어 권력계승자의 지위를 확보하였다.<sup>61)</sup> 김정일이 정치위원으로 취임하자 『로동신문』은 즉시 그를 ‘당중앙’으로 호칭하였다. 1973년 가을 이후 최용건과 김일 등 혁명 1세대의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고 혁명 2세대나 실무형 지도자들의 발탁이 두드러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62)</sup>

이와 함께 ‘계속혁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사로청에 대한 조직개편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정일은 사로청의 조직 상황을 “지시와 독촉으로 이어지는 문서놀음, 즉 ‘문건놀음’으로 상징되는 관료주의, 밤거리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유람형태의 행세식 지도, 영감티를 내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청년들에게 명령하고 통제하는 사업 방식으로 과거 당조직이 가지고 있던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사업방식이 사로청에 이식되고 배양되었다”라고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사로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조직혁신을 하기 위해 젊은 간부들로 교체하였다.<sup>63)</sup> 특히 사로청 간부들의 노쇠화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사

61)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동국대 안보연구소, 『안보연구』, 23호(1993), 37쪽.

62)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330쪽.

63) 백남룡, 『계승자』(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148쪽. 북한 문학에서 김정일을 형상한 문학을 ‘수령형상문학’이라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4·15문학창작단’이 주축이 되어 창작하고 있다. 1970년에 처음으로 창작되었으며, 1973년에는 김정일 송가문학이 20여 편 창작되었고, 1974년에는 김정일을 칭송한 송가시집 『2월의 송가』가 발표되었다. 현재 김정일에 대한 ‘수령형상’ 문학작품 시리즈는 ‘불멸의 향도’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30~31쪽. 백남룡의 소설 『계승자』는 시대적 배경이 1973~1975년까지로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권력의 계승자인 김정일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계승할 청년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하였는가가 중심 내용이다. 이 작품을 통해 사로청 간부의 세대교체,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사로청의 핵심 임무, ‘속도전청년돌격대’ 결성의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권력승계 시기 사로청 위원장 변동 사항<sup>68)</sup>

이름	위원장 재직 시기	출생연도	주요 이력	특이사항
홍순권	1962년~ 1967년 9월	미상	1956년 11월 민청 중앙위 상임위원 1957년 5월~1959년 2월 민청 중앙 위 부위원장	1967년 9월 해임, 공직에서 추방
오기천	1967년 9월 ~1970년 11월	미상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출신 1967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시학	1970년 11월 ~1972년 12월	1932년	1972년 중앙방송위 위원장 1981년 당중앙위 청소년사업부장 1998년~현재 개성시 당 책임비서 현재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1970년 조선로동 당 5차대회 및 1971년 사로청 6 차 대회 당시 사로 청위원장
이영복	1972년 12월 ~1976년 6월	미상	1961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 부 상급교원 1972년 12월 사로청위원장 1982년 청진시 당 책임비서 1991년 교육과학원 부원장 1993년 근로단체 부부장 1998~2004년 4월 남포시 당 책임 비서	1975년 7월부터 1976년 6월까지 활동 공백
지재룡	1976년 6월 ~1978년 12월	1942년	1972년 2월 사로청 중앙위원회 부위 원장 1974년 5월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1993년 당 국제부 부부장	2004년경 당 국제 부 부부장에서 좌 천
이영수	1978년 12월 ~1986년	1946년	1972년 공업기술총연맹부위원장 1985년 10월 당 중앙위 청년사업부 부부장 현재 당 중앙위원	

자료: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9); 『북한인명사전』(서울: 서울신문사, 1991); 『북한인물사전』(서울: 북한연구소, 1991); 『북괴신문잡지집필자인명록-사회과학분야』(서울: 내외통신, 1975); 『북한인물록』(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9); 『북한인명사전』(서울: 중앙일보사, 1981); 『로동신문』; 조선일보(www.nkchosun.com) 북한 인물검색 등을 참고하여 정리.

로청이 청년단체다운 기백과 적극성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sup>64)</sup>

사로청 간부들의 세대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로청 조직 내부 변

64) 채종완, 『청년사업 경험』, 108쪽.

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권력계승에 대한 지지 세력의 확장이다. 실질적으로 500만 청년들과 300만 소년단원들을 대표하는 사로청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위로서, 이 조직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표 2>에서 간부 세대교체의 상징성을 띠는 사로청 위원장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홍순권은 함경남도 출신으로서 1948년 모스크바 대학을 유학하였으며 갑산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sup>65)</sup> 1967년 당내에서 갑산파가 ‘반당반혁명숙청분자’로 숙청되고 사로청에서도 중앙위원회 위원장 홍순권을 비롯한 간부들이 숙청되었다.<sup>66)</sup> 북한은 ‘반당반혁명숙청분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력부대인 청년들을 안일해이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사로청 총회와 생활총회모임에 ‘오락’을 끌어 들여 사로청의 규율을 허물어뜨리고 ‘구락부화’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당반혁명숙청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제거하고 유일사상체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sup>67)</sup>

65)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1945~1968』(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1057쪽. 홍순권은 1954년 당 중앙위원회 과장을 거쳐 1956년 사로청의 전신 조직인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청년사업을 시작하였다. 1957년 사로청 부위원장 거쳐 1962년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1964년 민청이 사로청으로 ‘발전’하는 당시에도 위원장이었다.

66) 홍순권은 그는 1967년 3월 27일 『로동신문』에 “청년들을 당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며 새로운 혁명적 고조어로 불러일으키자”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 1967년 5월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해임된 것을 알 수 있다. 내외통신, 『북괴신문잡지집필자인명록-사회과학분야(하)』(서울: 내외통신, 1975), 835쪽.

67)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367쪽.

68) 일본 세계정경조사사회에서 1996년에 발간한 『북조선인명사전』에서는 지재룡이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이영수가 1980년 12월부터 1986년 8월까지 위원장이었다고 오기하고 있다. 지재룡과 김시학의 출생년도를 각각 1943년, 1923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 2>의 내용은 각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홍순권의 숙청 후 후임 사로청 위원장으로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출신의 오기천이 임명되었다. 오기천에 대한 인물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오기천은 1967년 사로청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68년 7월에는 청년학생대표 단장으로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였고, 1970년 5월 사로청 단장 자격으로 소련공청 제16차 대회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개적 활동이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다.<sup>69)</sup>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1970년 제5차 조선노동당 대회 전 전격적인 사로청 위원장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70)</sup>

2006년 3월 현재 개성시 당 비서인 김시학은 1970년대 초반 사로청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김시학의 아버지인 김철은 김일성의 항일투쟁 동지로 1934년 10월 전투에서 입은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해방 후 김시학은 혁명유자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김일성의 친위병으로 복무하였다. 조선노동당 5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인 1970년 9월 김일성이 직접 김시학을 불러 “아버지가 청년사업을 했던 것을 따라 청년사업을 잘하라”라고 직접 사로청 위원장에 내정하였다. 김시학은 1932년생으로 사로청 위원장 당시 39살이었다.<sup>71)</sup> 김시학이 사로청위원장을 물러난 이후인 1972년 11월에 중

69)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북한인물록』(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9), 233쪽.

70) 김일성은 청년사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사로청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나이가 옛날 같으면 손자 불 나이의 일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하면서 젊은 사로청원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로청 일군들은 젊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27~28살의 청년들로, 군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은 35~38살 나이로 꾸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김일성,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 조직으로 꾸릴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5권, 387~388쪽.

양방송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을 볼 때 사로청 간부들의 연소화를 목적으로 한 세대교체를 통한 김정일의 세력 구축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972년 12월 사로청 위원장이 김시학에서 이영복으로 교체되었다. 1971년 2월 김일성이 중앙 사로청 간부들을 35세 이하로 꾸리고, 군 사로청 일군들은 32세까지의 청년들로 꾸릴 것을 지시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sup>72)</sup> 그 결과 1972년부터 사로청 사업을 한 도사로청위원장들의 나이가 30~31살로 낮추어졌으며, 세대교체를 이룬 신진 사로청 간부들은 장차 훌륭한 당일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김일성은 평가하였다.<sup>73)</sup> 그러나 여전히 30살 넘는 사로청 간부들이 많이 있으며 심지어 40세가 되는 간부가 있다면서 당중앙위원회 청년지도부가 사로청을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74)</sup> 또한 새로 임명된 이영복에게 지금은 30세이지만 3~4년 후에는 젊은

71) 김시학의 나이에 대해 상반되는 자료가 있다. 2004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의 주요인물』에서는 1932년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1991년 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인명사전』에서는 1923년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인 김철은 1912년 4월 14일생으로 1931년 항일투쟁을 시작하여 1933년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으며, 1934년 10월에 전사하였다. 그의 죽음은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안치되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8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2), 204쪽; 최봉식, 『대성산 혁명열사릉』(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에서는 김철에 대한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밝힌다.

72)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 사업을 더욱 적극화할 데 대하여”(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및 사로청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3일), 『김일성저작집』, 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7~18쪽.

73) 김일성,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1977년 3월 31일),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95~196쪽.

74) 김일성, “새로 배치된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사로청위원들 앞에서 한 연설”(1972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542쪽.

일군과 교대해 사로청 일군을 더 젊은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5)</sup> 이영복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3년도 안 된 시점인 1975년 7월 17일 ‘재일본조선인청년동맹’ 대표단 환영 평양시 청년학생 집회 이후 공개적인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영복의 활동이 1년 넘게 보이지 않다가, 『로동신문』 1976년 6월 26일자에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자로 지재룡이 사로청 위원장으로 소개되어 위원장이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sup>76)</sup> 김정일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한 청년동맹의 위원장이 일 년 동안 공백을 가졌다는 것은 북한 공간(公間) 문헌의 수사들(rhetorics)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 지도를 위해 조직부 내에 별도로 ‘3대혁명지도과’를 신설하여 중앙당은 물론 도당·군당까지 설치하였는데,<sup>77)</sup> 이를 통해 청년들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어 사로청 위원장 공백이 권력승계 과정의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976년 사로청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지재룡은 1942년생으로 위원장일 당시 34살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로청 위원장으로

75) 김일성, “새로 배치된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사로청위원들 앞에서 한 연설,” 555쪽.

76) 1975년 8월 25일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8월 투쟁 10돌 기념 평양시 청년학생 보고회’를 시작으로 청년동맹 위원장이 참가해야 할 행사에 부위원장들이 대신 참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2월 19일에 개최된 사로청 중앙위원회 12차 전원회의인데, 이 회의에서도 장민룡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하였다. 1976년 6월 6일자 『로동신문』에서는 6월 5일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조선소년단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장민룡 부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으며, 6월 12일 행사도 장민룡 부위원장이 사로청을 대표해서 참석하였다. 6월 15일 일본사회당 청년활동가 대표단 환영연회에 지재룡이 참석하였으나 직책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영복의 장기 활동 공백은 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활동 공백이거나 정치적 과오로 인한 숙청 후 복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1982년 이후 청진시당 책임비서로 재기용된 후 현재까지 공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77)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115쪽.

선임되었다.<sup>78)</sup> 그는 1969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부터 사로청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였으며,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위원장 직을 수행하였다. 이영수는 1946년 강원도 출생으로서 공업기술연맹에서 활동한 전문기술관료 출신으로 파악된다. 이영수의 위원장 선임 배경은 1970년대 하반기 북한 사회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당시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로청 내적으로는 ‘속도전철년돌격대’ 활동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제 2차 7개년계획(1978~1984년)을 확정하고, 그 기조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제시하였다. 국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경제건설의 현대화·과학화 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술관료 출신인 이영수를 사로청 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sup>79)</sup>

그러나 김정일 권력승계 공고화 정책으로 시행된 급격한 사로청 간부들의 세대교체는 간부 부족 현상을 낳았다. 질 높은 청년간부 양성을 위해 1967년에는 사로청 중앙학교를 사로청 대학으로, 1973년에는 금성정치대학으로 발전시켰지만 대폭적인 간부 교체에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0)</sup> 이는 김일성이 사로청의 결원 간부들을 빨리 채우기 위한 대책으로 금성정치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 그리고 도·시·군 사로청위원회에서 일하던 일군들을 잘 배합해서 구성하여 사로청의 과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에서 알 수

78) 다른 자료에서는 지재룡의 출생연도를 1940년도로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계연구소, 『북한인명사전-1983년도』(서울: 중앙일보사, 1983), 389쪽. 그는 사로청 활동 후에는 전문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정무원 외교부 순회대사, 주체코대사 등을 역임한 후 당 국제부부장으로 재입하다가 2004년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79)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서울: 풀빛, 2003), 46쪽.

80) 채종완, 『청년사업 경험』, 110쪽.

있다.<sup>81)</sup> 군대에서도 1970년대 중반에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었다. 중대장은 종전의 30~40세에서 32세 미만으로, 대대장은 40~50세에서 32~35세로, 연대장은 50~60세에서 30~40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의 상당 부분과 일부 사단장급 지휘관을 교체했다. 이 시기 혁명 2세대 군부지도자인 오극렬, 김두남, 김강환, 최상욱 등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김정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2)</sup>

#### 4. 대중운동 전위대로서의 청년들의 위상 강화

##### 1) 김정일의 친위대: 3대혁명소조

3대혁명소조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시작된 사상·기술·문화 혁신의 대중운동이면서, 이 운동의 지도 주체가 권력 후계자인 김정일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 직후 김일성은 사상활동 부문 활동가들에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과도기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지 않아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후에도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장기간 남아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주의 혁명 승리 후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어야 과도기가 중

---

81) 김일성, “사모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 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4권, 197쪽 참조.

82)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민연, 2002), 337쪽.

료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위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sup>83)</sup>

북한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1973년 2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초기 ‘지도소조’라는 명칭으로 당핵심과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당일군, 국가경제일군, 대학생, 대학교원, 과학자, 기술자들로 확대되었다. 이 중 약 90%는 청년 인텔리(대학졸업생과 재학생)로 구성되었고 규모는 20~30명에서부터 50명까지로 구성되었다.<sup>84)</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당일군과 대학생들을 지도소조로 선발·구성해 시범적으로 각 공장에 파견하였다. 즉,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사회주의 개조의 완성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파견되었다.<sup>85)</sup>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오래된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기관본위주의 등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sup>86)</sup> 즉,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회 전 부문에서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중심

---

83) 스킨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96쪽.

84) 권오윤, “북한 동원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4), 309쪽.

85) 3대혁명소조운동의 등장 배경은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정치적 배경으로는 유일지도체제 형성, 세대교체, 정치적 폐단의 극복, 경제적 배경으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치, 농촌에서의 3대혁명의 수행, 사회적 배경으로는 도시·농촌 간 불균형, 노동력의 부족, 엘리트 정책의 변화로 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탁용달, “3대혁명소조운동에 관한 연구”(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 31~71쪽 참조.

86) 박형중, “1970년대 북한 관료체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와 생산동원”(1993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발표회), 12쪽.

세력으로 위치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 결과 1970년에 49만 7,000명이던 기술자들이 1976년에는 1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낳았다.<sup>87)</sup>

북한에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의 구체적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3대 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었으며 3대혁명수행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적극 내세워주시었다. 각급 사로청 조직들을 당의 조치에 호응하여 새것에 민감하고 정열에 불타는 사로청원들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그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근위대, 선봉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sup>88)</sup>

소조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가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기본이 되었으며, 현장에 맞는 기술지식 습득도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 이것은 청년들이 소조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들은 당중앙위원회 지도하에 당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김정일의 지지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현지지도 현장에서 청년 모범 소조원에게 파격적인 입당 허용, 잡지 『대학생』의 창간, 모범 사로청원들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3대혁명소조운동을 독려하였다.<sup>89)</sup> 또한 3

---

87) 『로동신문』, 1976년 1월 1일.

88)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 442쪽.

89) 위의 책, 443쪽.

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대학생들을 간부로 등용하여 그들에 대한 높은 정치적 신임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다.<sup>90)</sup>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라는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넓힘으로써 권력 장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3대혁명소조가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도를 실천하는 전위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4년 9월에 개최된 ‘3대혁명소조 제2차 대회’에서는 “당중앙의 지도가 하부말단에서 제때에 구현되도록 아래를 도와 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3대혁명 수행에로 힘 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또 3대혁명소조들은 사상·기술·문화혁명에서 당중앙의 지도 밑에 활동하는 지도역량이며,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방조자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최근 3대혁명소조운동이 재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로동신문』에 “각지 공장과 기업소, 농업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생산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힘 있게 벌여 최근 연간 1,150여 건의 혁신안을 생산에 반영했다”라는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의 재개를 공식 확인할 수 있다.<sup>91)</sup> 이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은 이 운동의 본질적 요소인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추진 성과보다는 김정일의 후계 구도를 완성하는

---

90)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4월 30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96쪽.

91) 『로동신문』, 2003년 12월 12일.



데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들에 대한 지도는 사로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이 직접 3대혁명소조를 지도하여 청년사업에서 왜곡 현상을 파생시켰다.

## 2) 청년운동 전통과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결합: 속도전청년돌격대

돌격대 운동의 원형은 소련의 내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은 1920년대 후반이다. 스탈린은 내전이 끝나자 군대에 동원되었던 청년들을 산업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차 5개년 계획 기간(1928~1933년)에 품소몰을 산업전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돌격대로 급속하게 변모시켰다.<sup>92)</sup> 소련의 품소몰 대원들이 주축이 된 노동 집단이 그들의 작업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브리가다(작업반)를 조직했던 경쟁운동으로 돌격대가 본격화되었다.<sup>93)</sup> 북한 또한 청년들에 대한 동원 정책이 1945년 해방 후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청년돌격대'운동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노력전선의 믿음직한 전투부대이며 청년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공산주의교양의 훌륭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sup>94)</sup> 이러한 북한의 인적 자원 동원 정책은 일제 식민지 통치 결과로 인해 민족자본의 기반이 축적되지 않았던 역사적 구조와 한국 전쟁의 경험을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와 함께 '속도전'은 1970년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정일에 의해 제창되었던 일종의 새로운 방침이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

92) Ann todd baum, *Komsomol Participation In The Soviet First Five-Year Pl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pp. 23~24.

93)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서울: 박종철출판사, 2002), 215쪽.

94) 조선청년사, 『청년들의 혁명화를 위하여』(동경: 조선청년사, 1969), 136쪽.

불과 40여 일 만에 시나리오부터 연출과 음악 등의 모든 것을 끝낸, 말 그대로 ‘속도전’이었다. 속도전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속도전을 제창하고 북한의 모든 대중운동의 형식으로 일반화시켰다. 북한의 매체들은 1974년 연초부터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독려했으며,<sup>95)</sup> 1974년은 ‘속도전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속도전’을 강조하였다.<sup>96)</sup>

이와 같이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청년운동의 전통인 ‘돌격대’와 김정일이 창조한 대중운동 방식인 ‘속도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대해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근본 목적으로 제기하고 당의 속도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활동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술 역량과 수단을 갖추고 군대와 같은 조직체계와 명령체계에 따라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7)</sup> 즉, 속도전은 사상전이라는 것이 김정일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아가 최단 기간 내에 사업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 형식으로서 속도전은 ‘사상전’이며 ‘사상전’은 전격전과 집중공세, 그리고 섬멸전의 방법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sup>98)</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년돌격대가 ‘속도전청년돌격대’로 ‘발전’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식 부분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로 정식화되기 전에 청년돌격대는 사로청의 임시

95)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2001), 199쪽.

96) 『로동신문』의 1974년 기사를 보면, ‘속도전’의 구호와 관련 기사가 매일 게재되고 있으며 각 기업소와 농장에서 ‘속도전’을 완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97)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 411쪽.

98) 『로동신문』, 1974년 4월 3일.

조직이었다. 이로 인해 청년돌격대원들이 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돌격대에게 주어지는 경제건설 임무는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정치사상생활, 도덕생활에서의 성장은 이루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즉, 청년돌격대를 상설화하여 엄격한 규율로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체제순응적 청년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결성 목적이다.<sup>99)</sup>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해 청년돌격대는 한 사업이 끝나도 해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군대와 같은 정규화된 조직체계로 운영되는 청년돌격대를 결성한 것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1970년대 경제적 성과를 보면, 2년 이상 걸린다는 평양과 마동 사이의 철도전기화 공사를 ‘충성의 속도정신’으로 단 2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이와 함께 구장-팔원, 평양-덕천, 길주-혜산 사이의 철도전기화 공사를 비롯해 국제친선전람관, 대동강텔레비전 수상기 공장, 청진조차장(操車場) 건설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sup>100)</sup> 그러나 속도전이 파생시킨 문제점도 심각하다. 속도전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을 비롯한 물적 자원의 집중적 투자를 낳게 된다. 즉,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한 부문을 추켜세우면 투자에서 배제된 다른 부문이 침체된다. 이러한 현상을 ‘시소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불균형 투자가 원인이 되어 ‘속도전’은 실패하게 된다.<sup>101)</sup>

김정일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기존의 청년돌격대를 정규화함으로써 사상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자의 불균형

99) 백남룡, 『계승자』, 362쪽.

100)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 412쪽.

101)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370쪽.

투자로 인해 만성적인 불균형과 비효율을 파생시켰다. 즉,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가 희생되는 현상을 낳게 된 것이다.

## 5. 결론: 김정일 후계 체제에 주는 시사점

북한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의 자격요건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체득을 우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2)</sup> 후계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과연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수령의 후계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반면에 ‘수령제’ 사회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 체제 성격상 수령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한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김정일 이후 권력승계의 성공 여부는 북한 체제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정치운영 방식인 ‘선군정치’에서는 청년층을 강조하고 있다. 선군정치 방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청년중시 내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02) 이와 함께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과 이론을 가장 심도 있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상·이론적 재능을 구비한 사람, 수령의 사업 방식을 가장 완벽하게 체득한 사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에서는 ‘걸출한 인물’, 즉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수령과 함께 혁명위업 완수에 충성을 다 하는 인물이 후계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기본원리인 ‘인물본위’를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후계자 선출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전민층적 추대, 새세대의 인물, 수령생존시 선출을 들고 있다. 김유민, 『계승자론』 (동경: 구월서방, 1986), 72~76쪽;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사 미상, 1989), 38~52쪽.

것이 바로 청년들이기 때문이다.<sup>103)</sup> 최근 북한에서 선군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총대중시와 청년중시가 하나로 결합되고 청년군인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혁명과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 여기에 선군시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선군혁명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필승 불패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04)</sup> 최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선군위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라고 청년들을 강조한 것<sup>105)</sup>과 청년동맹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일성이 사로청 7차 대회에서 한 연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를 녹음으로 청취한 것도 시사

103) 사로청 규약 7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안의 사로청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에서는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 사로청 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사로청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선인민군 사로청위원회는 도(직할시) 사로청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사로청위원회는 사로청 중앙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지도 밑에 사업하며 자기의 사업정형을 사로청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동청년』, 1993년 2월 25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내의 정치부에는 조직부, 선전부, 청년사업부가 있으며, 청년사업부는 비당원 하전사로 구성된 청년동맹 사업을 담당한다. 각급 부대 청년사업부장이 청년동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소대의 경우 초급당단체 위원장이 동맹위원장을 겸임하고 조직 및 사상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위원장이 있다. 청년동맹원은 비당원이지만 청년동맹의 활동은 당 활동에 준해서 하기에 실제 당 활동과 차이가 없다.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 2003), 158~159쪽.

104) 『로동신문』, 2004년 9월 19일.

105) 『로동신문』, 2006년 1월 1일.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청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대오이며 혁명의 수뇌부를 받들어 선군위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세대이다.” 『로동신문』, 2004년 1월 1일.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청년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힘 있는 역량이다. 모든 청년들은 언제나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긍지 높은 력사와 전통을 이어 올해의 총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로동신문』, 2005년 1월 1일.

하는 바가 크다.<sup>106)</sup> 북한의 선군정치와 권력승계 시기가 교차하면서 북한에서는 ‘청년중시’ 담론이 ‘유행’하게 되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간부의 세대교체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간부의 세대교체는 후계자의 지지 세력을 양성하여 권력승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후계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간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김정일이 권력 후계자로 부각될 시기에만 청년동맹 간부의 세대교체가 강조되었는데 북한 정치사에서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청년동맹 간부 세대교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sup>107)</sup> 북한의 경우 청년동맹의 간부들에 대한 연령 제한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sup>108)</sup> 지도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간부의 세대교체는 가능하다. 2006년 현재 청년동맹 위원장인 김경호는 1958년생으로 48세에 김정일 이후 권력승계자가 부각될 경우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 청년동맹 위원장이었던 최룡해(1986~1997년)와 리일환(1998~2001년)은 최현과 리을설의 아들로서 항일혁명투사의 2세들이다. 김정일 후계자의 공고한 지위 확보를 위해 김일성의 항일혁명 동지들의 손자들인 혁명 3세대

---

106) 『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17일. [www.kcna.co.jp](http://www.kcna.co.jp)(검색일 2006년 2월 28일).

107) 1970년대에는 ‘충직한’ 당 일군들이 있었기에 “로동당 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날 일군들에게 “선군혁명총진군에서 높은 조직 지휘력”을 발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일군들은 선군혁명총진군에서 높은 조직지휘력을 발휘하자,” 『조선중앙통신』, 2006년 3월 13일, [www.kcna.co.jp](http://www.kcna.co.jp)(검색일 2006년 3월 13일).

108) 중국의 경우 간부 연소화 정책은 최고 영도자 간의 합의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제15기 권력구조에서 喬石(전인대 상무위원장), 劉華濤(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난 것도 정치국 위원 이상 간부는 직책 담당 시 연령이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합의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원칙이었다. 정차근·주정연, “중국의 간부연소화와 권력승계,”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2권 제3호(2002), 252쪽.

중에서 청년동맹 위원장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109)</sup>

현재 북한 핵심권력층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각 부문별로 상당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보·과학기술, 실력과 실리가 강조되면서 이공계 대학 출신의 관료와 30~40대의 혁명 3세대들이 급부상하면서 세대교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sup>110)</sup> ‘대남일꾼’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종사자들에서도 나타나 2004년 초까지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를 맡아왔던 6대 초반의 김령성 내각 책임 참사가 물러나고 40대 중반인 권호웅으로 교체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11)</sup>

최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3대혁명소조운동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수령의 후계자’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김정일의 후계구도에 활용한다는 분석이 있다.<sup>112)</sup>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제기 배경보다는 운동의 실질적 지도 주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원들을 자신의 전위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권력승계자에게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한 친위대·전위대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명된 후계자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는 것이므로 김일성이 조직한 후 김정일에게 지도권을 넘겨준 것처럼

---

109) 청년동맹 중앙위 조직비서인 장용철은 30대 후반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의 형 장성우 인민군 차수의 장남이다. 백일영 인민보안성 청년동맹 제1비서는 인민보안성을 지낸 백학림 인민군 차수의 아들로 4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북 고위층 2세대들 요직 ‘대물림,’” [www.nkchosun.com](http://www.nkchosun.com)(검색일 2006년 3월 12일).

110)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45쪽.

111)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 구도: 징후와 후계 구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2005), 358쪽.

112) 정성장,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후계 문제,” 30쪽.

럼 김정일도 자신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재조직한 후 일정한 시점에 후계자에게 지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김정일 이후 북한 권력계승자는 김정일 다음 세대 인물이 될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자에게는 청년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권력승계 성공 여부를 좌우<sup>113)</sup>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김정일이 신진 청년간부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3대혁명소조와 속도전청년돌격대라는 친위부대를 구축했던 것처럼 김정일의 후계자 또한 청년동맹을 장악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지도체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군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시대에서는 군의 인적 구성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은 후계자의 ‘지도체제’의 정치적·조직적 핵심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접수: 2월 28일 / ■ 채택: 3월 25일

113)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통해 자유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지식인과 학생들의 크고 작은 소요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중국에서 발생한 천안문 사태를 주도한 세력은 청년학생들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더 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시위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들은 공산당이 보수화와 편협화로 인해 퇴보되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공산당 조직으로는 인민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련에서도 청년들에 교양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89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새로운 소련청년단체위원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소련 청년운동에 대한 폄소몰의 독점을 반대하며 청년운동에 있어서도 ‘다원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만든 단체였다. 그 결과 폄소몰에서 탈퇴한 청년들이 무려 4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에는 폄소몰 21차 대회에서는 폄소몰 규약 개정이 있었는데, 규약에서 “소련공산당의 방조자·후비대이며 당의 영도하에 활동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청년조직이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혁명적 교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반사회주의자의 장단에 놀아나 자본주의화가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중수, “북한의 위기대응 전략 — ‘청년중시’ 정책을 중심으로,” 255~256쪽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북한 문헌>

#### 1) 단행본

- 근로단체출판사, 『청년영웅전』 2(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66).
-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7).
- \_\_\_\_\_,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청년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8).
- \_\_\_\_\_,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 \_\_\_\_\_, 『주체의 학습론』(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 \_\_\_\_\_,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9).
- 김유민, 『계승자론』(동경: 구월서방, 1986).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출판사 미상, 1989).
- 민주청년사, 『조선민주청년동맹 제4차 대회 문헌집』(평양: 민주청년사, 1956).
- 백남룡, 『계승자』(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정치문화교양부, 『동맹 강령 및 규약 해설』(평양: 청년생활사, 194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 284.
-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청년영웅전』 1(평양: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 사회과학원 김일성혁명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서울: 돌베개, 1989 재발간).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위업』,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조선청년사, 『청년들의 혁명화를 위하여』(동경: 조선청년사, 1969).
- 채중완, 『청년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최봉식, 『대성산 혁명력사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2) 논문

- 김일성,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회의에서 한 결론, 1963년 4월 18일), 『김일성저작집』, 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민주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청단체들의 과업”(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2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9월 29일), 『김일성저작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민주조선건설에서 청년들의 임무”(도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 1946년 5월 30일), 『김일성저작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민주청년열성자대회에서 한 결론, 1945년 10월 9일), 『김일성저작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연설”(1948년 11월 14일),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평양: 문화출판사, 1949).
- \_\_\_\_\_,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 조직으로 꾸릴데 대하여”(1970년 11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1977년 3월 31일),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새로 배치된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사로청위원들 앞에서 한 연설”(1972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함경북도 단체들의 과업”(함경북도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4년 7월 12일), 『김일성저작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년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7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 \_\_\_\_\_,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 사업을 더욱 적극화할 데 대하여”(1971년 2월 3일), 『김일성저작집』, 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1975년 4월 30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년 2월 10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1971년 10월 1일), 『김정일 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자”(1968년 7월 18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하영,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사상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청년생활』, 제4권 제5호(평양: 청년생활사, 1951).

노·아미하이로브, “전련맹 공산당은 공청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레닌-쓰 딸린적 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

리두진, “동맹 정치교양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청년생활』, 1949년 9월호(평양: 청년생활사, 1949).

아·노·쉐레펜,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공청,” 『레닌-쓰 딸린적 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

### 3) 신문

『민주청년』

『로동신문』

『로동청년』

『정로』

### 4) 기타자료

『북한관계 사료집』 1·4·8권(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82·1986·1989).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 [www.kcna.co.jp](http://www.kcna.co.jp).

## <국내 문헌>

### 1) 단행본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1945~1948』(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내외통신, 『북괴신문잡지집필자인명록—사회과학분야』(서울: 내외통신, 1975).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북한인물록』(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9).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서울: 풀빛, 2003).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 2003).

북한연구소, 『북한인물사전』(서울: 북한연구소, 1991).

서울신문사, 『북한인명사전』(서울: 서울신문사, 1991).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1).

손광주, 『김정일리포트』(서울: 바다출판사, 2003).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서울: 통일연구원, 2003).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 200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1).  
\_\_\_\_\_,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정경모·최달근 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서울: 민연, 2002).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계연구소, 『북한인명사전-1983년도』(서울: 중앙일보사, 1983).  
\_\_\_\_\_, 『북한인명사전』(서울: 중앙일보사, 1981).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서울: 박종철출판사, 2002).

## 2) 논문

강성윤, “조선로동당 창건사에 대한 역사적 재고찰,” 『통일문제연구』, 39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3).  
강신우,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연구”(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8).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안보연구』, 23호(동국대 안보연구소, 1993).  
권오윤, “북한 동원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4).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95).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재웅,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현실』, 56호(한국역사연구회, 2005).  
김종수, “북한의 위기대응전략: ‘청년중시’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43호(평화문제연구소, 2005).  
박형중, “1970년대 북한 관료체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와 생산동원,” 1993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발표회.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현대북한연구』, 7권 3호(경남대 북한대학원, 2005).  
신경완, “겉에서 본 김정일(상),” 『월간중앙』, 1991년 6월호.

- 이기동, “선군시대로의 이행과 후계구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민주평통 서울 시협의회, 『김일성 사후 10년, 김정일체제 평가』, 제4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2004.
- 이분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성격과 조직,” 『중소연구』, 28호(한양대 중소연구소, 1985).
- \_\_\_\_\_, “중국 청소년의 사상정치교육,” 『중소연구』, 41호(한양대 중소연구소, 1989).
- 이수석, “김정일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기존 쟁점들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42호(평화문제연구소, 2004).
- 정성장,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후계 문제: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보고서』, 제52호(세종연구소, 2004).
-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징후와 후계 구도,”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한국정치학회, 2005).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 정차근·주영연, “중국의 간부연소화와 권력승계,” 『지역발전연구』, 제2권 제3호(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 탁용달, “3대혁명소조운동에 관한 연구”(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

### 3) 기타 자료

www.nkchosun.com

### <국외 문헌>

- Ann Todd Baum, *Komsomol Participation In The Soviet First Five-Year Plan*(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Anne E. Gorsuch, *Youth in Revolutionary Russia*(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 Ralph Talcott Fisher, Jr.,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es of the Komsomol 1918~1954*(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世界政經調査會, 『北朝鮮人名事典』(東京: 世界政經調査會, 1996).
- 올라지미르 예고로브, 『70돌을 맞는 소련공청』(모스크바: 아뻬엔출판사, 1988).

## Era of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Socialist Working Youth League

Dae-Seok Choi(Ewha Womans University)

Jong-Su Kim(Dongguk University)

The interest in who will succe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has been growing since Kim himself was named successor to his father three decades ago. This study analyzes the question of North Korea's power transition by analyzing the change within the Socialist Working Youth League in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The Youth League is the Revolutionary Formation of the young who inherit Revolutionary Duty directly and the militant group of the Korea Workers party. The early Youth League was a transmission belt not for the Korea Workers Party but for the communist regime. Later, the identity of the Youth League changed to one of a labor company at the 3rd Youth League Convention in 1948.

The Korea Workers Party decided at the 15th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in 1968 on various methods to educate North Korea's youth, such as 'read 10 thousand pages', 'film study', and 'field investigations'. Kim Il Sung emphasized that the youth should accomplish their "revolutionary duty", and it was undertaken to combine the generations at the 6th Socialist Working Youth League Convention in 1971. Also, Kim Il Sung replaced the aged executive of the Socialist Working Youth League, a move that strengthened the constituency of his son, Kim Jung Il. With this, the Three Revolutionary Teams Movement was important in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 based on *juche* ideology, improving the material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economy, and developing socialist national culture, a system of North Korea-style socialism. The establishment of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Brigades' — a melding of the traditional youth movement and 'Speed Battle', the latter a method of mass mobilization created by Kim Jung Il — took place so that the youth could realize their "revolutionary duty", and so that youth could be raised to accept the logic of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system.

Key Words: Socialist Working Youth League, Three Revolutionary Teams Movement, Speed Battle Youth Shock Brigade, Power Succession, Youth League

## 필자 약력(계재순)

### 최대석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정 부교수로,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1982), 미국 클레어먼트대학원에서 “The 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the Case of HCIP, 1971~79”로 정치학박사를 받았다(1993). 주요 논저로는 『현대북한체제론』(공저, 2000), “북한의 초기 대남정책 변천과정 연구”(2003), “북한의 선군정치와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2005) 등이 있다.



## 김종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북한의 ‘청년중시’ 정책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03), 동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2005). 발표 논문으로는 “북한의 위기 대응전략: ‘청년중시’ 정책을 중심으로”(2005), “북한의 ‘친일파’ 처리에 관한 연구(1945~1948)”(2005) 등이 있다. 한국청년연합(KYC)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